

일반청소년과 학교폭력 가해청소년의 불안이 폭력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노표현양식의 매개효과

Mediating Effects of Anger Expression Types for Anxiety on the Violent Behaviors of Adolescent School Violence Offenders and General Adolescents

오종은(Jong-Eun Oh)¹, 이재연(Jae-Yeon Lee)^{2*}

¹Korean Arts Counseling Coop

²Department of Child Welfare, Sookmyung Women's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alidate the mediating effects of anger expression types for anxiety on the violent behaviors of adolescent school violence offenders.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114 adolescent school violence offenders and 178 general youths were selected. Through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the mediating effects of anger expression types that are manifested in the path of violent acts of adolescent school violence offenders and general youths are verified.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for both groups, the same path of violent behavior through anger-in and anger-out was followed: youths repress anger when they have higher anxiety, and when too much anger is repressed, anger-out increases, which results in more violent behaviors. Second, the level of anxiety of adolescent school violence offenders has direct effect on the responsive violent behaviors while the level of anxiety of general youths does not have direct effect on violent behaviors. Third, although the anxiety of adolescent school violence offenders may increase violent behaviors through the paths of acting-in and acting-out, violent behaviors can be reduced by reducing anger-out. Therefore, to reduce the violent behaviors of adolescent school violence offenders, intervention is needed for those who repress their anger due to anxiety; professional education is also required for adolescent school violence offenders to help them control their anger.

▲주제어(Key Words) : 일반청소년(general adolescent), 학교폭력가해청소년(adolescent school violence offenders), 불안(anxiety), 폭력행동(violent behavior), 분노표현양식(anger expression types)

I. 서론

우리 사회는 날로 다양하고 흉악해지는 학교폭력 사건의 증가로 몸살을 앓고 있다. 십대 청소년들의 또래나 교사 폭행, 불특정 대상을 향한 폭력 사례들은 더 이상 낮설

지 않은 사건들이다. 폭력의 형태 또한 언어폭력과 사이버폭력, 집단 따돌림 등으로 확대되어 학교폭력의 심각성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의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면서 정부는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 본 연구는 박사학위논문의 일부임.

* Corresponding Author : Jae-Yeon Lee, Division of Welfare, Sookmyung Women's University, 100 Cheongpa-ro 47-gil, Youngsan-gu, Seoul 140-742, Korea, Tel: +82-2-710-9474, E-mail: jylee@sookmyung.ac.kr

에 관한 법률' 등의 정책과 제도를 계속 개정·발표하고 있으나, 청소년들의 폭력행동은 여전히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청소년들의 폭력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교육과학기술부는 2012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7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3항을 개정 발표했다. 17조 3항의 내용은 가해학생조치처분을 받은 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반드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각 지역의 청소년 전문기관들은 폭력 가해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의 증가로 매우 분주해졌다. 그러나 주어진 짧은 기간 안에 가해학생의 폭력행동을 개선하기에는 전문가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무엇보다 폭력행동에 대한 이해가 충분치 않아 형식적인 조치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따라서 범죄의 확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폭력 행동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이해가 필요하며, 폭력행동의 동기와 원인에 따라 구분하여 접근하는 것이 폭력사건의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F. Poulin & M. Bovin, 2000).

청소년의 폭력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동기와 원인은 크게 환경적 변인과 심리적 변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 환경적 변인으로는 가족, 학교, 친구 집단, 사회구조, 대중 매체 등이 있으며, 심리적 변인으로는 스트레스를 비롯하여 자극 추구 동기, 성격, 자아 존중감, 우울증 등이 제시되고 있다(M. Lee, 2001). 특히 환경적 변인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가정 폭력 노출이나 학대가 청소년의 폭력과 문제행동에 관련된다는 것(G. C. Elliott, S. M. Cunningham, & M. Colangelo, 2011; N. Ellonen, J. Kaariainen, H. Sariola & L. Helweg, 2011)과 폭력 게임이나 매체가 청소년의 폭력행동이나 공격성에 영향을 준다는 것(C. Jo, 2008; C. J. Ferguson, 2011), 음주 및 흡연의 영향(J. Kim & G. Lee, 2010; M. H. Swahn & J. E. Donovan, 2005)등이며, 심리적 변인 연구는 분노와 공격성(H. Lee & J. Choi, 2008), 충동성(E. Sim, 1999), 스트레스(M. Lee & E. Choi, 2007)와 우울(G. Gwak & E. Mun, 1993)등이다.

청소년폭력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청소년의 폭력행동과 관련하여 환경적 변인에 관한 연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Elliott et al, 2011), 심리적 변인에 대한 관심은 폭력의 피해자와 목격자에게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Y. Park & E. Kim, 2001; T. K. Mendelson, A. Turner & S. D. Tandon, 2010). 가해청소년 연구는 심리적 변인보다는 주로 가해형태와 환경적 변인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며(K. Kim, 2006; C. J. Ferguson, 2011; R. Jankauskiene, K. Kardelis, S. Sukys & L. Kardeliene,

2008), 가해청소년의 심리적 변인 연구는 심리적 요인이 무엇인지 조사하는 것(H. Kwon & H. Kim, 2009)이나 폭력행동의 수준과 비교하는 연구(G. Gwak & E. Mun, 1993)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청소년 폭력행동의 심리적 요인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심리적요인의 수준과 폭력행동의 수준을 비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경로를 통해 폭력행동이 발생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한편, 청소년 폭력행동의 심리적요인 중 주목해서 보아야 할 요인은 불안이다. 청소년의 불안은 청소년 기의 대표적인 정신건강 문제이며, 청소년의 불안이 폭력문제와 관련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N. Slopen, G. M. Fitzmaurice, D. R. Williams, & S. E. Gilman, 2011) 국내에서는 주요한 폭력의 원인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가해청소년의 불안과 폭력행동을 다루는데 있어 고려해야 할 점은 불안과 폭력행동의 관계이다. 청소년 불안이 폭력적 행동을 증가시키는 위험 요인이라는 결과가 있는 반면 폭력행동을 감소시키는 보호요인이라는 상반된 보고들이 있기 때문이다. 즉 불안한 청소년들 모두가 폭력행동을 하는 가해청소년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불안에 대한 폭력행동의 결과가 상반되게 나타나는 것에 대해 두 가지 가능성을 가정해 볼 수 있다.

첫째는 폭력행동을 동기에 따라 구분하지 않은 것이다. 기존의 폭력행동 연구들은 폭력행동을 다차원적이고 기능적인 개념으로 보지 않고 단일 개념으로 보았기 때문에(M. Lee, 2001), 형태차원으로만 폭력행동을 구분하였다(K. Kim, 2006). 만약 폭력행동을 동기에 따라 기능차원으로 구분한다면, 불안과 폭력행동에 관한 연구결과가 불일치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폭력행동을 동기에 따라 기능차원으로 구분한 것이 반응적 폭력행동(reactive violent behavior)과 주도적 폭력행동(proactive violent behavior)이다(J. Lee, 2010). 반응적 폭력행동은 충동적이고 정서적인 특징을 갖고 있고, 위협 상황에 대한 일종의 분노반응 및 방어적인 공격행동이다. 이에 비해 주도적 폭력행동은 타인이 촉발하거나 분노 때문에 하는 행동이 아니라 타인을 지배하거나 군림하기 위한 폭력행동이다(B. Vitiello & D. M. Stoff, 1997). 반응적 폭력행동은 정서적 문제와 관련이 깊은 반면, 주도적 폭력행동은 목적 지향적인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불안과 같은 정서의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둘째는 불안이 폭력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다른 변인이 개입될 가능성이다. 두 변인의 관계가 일관적이지 않은 경우, 두 변인의 관계에서 다른 변인의 작용을 가정해 볼 수 있다(P. Frazier, A. Tix & K. E. Barron, 2004). 불안이 폭력행동으로 나타나는 경로에서 가정해볼

수 있는 매개변인(mediator)이 바로 분노표현양식이다. 불안이 분노와 정적 상관을 보인다는 연구들(H. Lee, 2000; A. T. Beck, 2000)과 함께 청소년기 폭력행동의 중요한 요인으로 분노가 지목되기 때문이다(M. Kim, 2001; S. Lee, 2003; M. Wittmann, E. Arce & C. Santisteban, 2008).

많은 청소년들이 개인특성, 가정환경 등의 다양한 원인에 의해 심리적 갈등과 욕구불만을 경험하며 이러한 것들을 분노로 표현한다(S. Moon & Y. Park, 2008). 분노는 느끼는 순간이 아닌 어떻게 표출하느냐에 따라 긍정적인 정서가 될 수도 있고, 부정적인 정서가 될 수도 있다. 분노 그 자체 보다 분노를 표현하는 과정이나 그 결과로 인해 분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한 것이다. 가해청소년들의 분노표현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가해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해질 수 있고, 이러한 주변의 부정적인 평가는 이들에게 분노의 감정을 더욱 증가시키면서 학교폭력 가해청소년들의 역기능적 분노표현 문제가 계속 악순환되는 결과를 낳게 할 수 있다. 가해 청소년들은 스스로 분노를 조절하거나 화를 참는 능력이 부족하며(H. Kwon, & H. Kim, 2009), 이러한 학교폭력 가해청소년들의 분노표현 양식의 특징은 폭력이라는 결과로 연결될 수 있다(C. Clarey, A. Hokoda & E. C. Ulloa, 2010). 폭력행동의 이면에는 조절되지 않은 분노가 자리 잡고 있으며, 분노를 사용하는 방식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Clarey et al, 2010). 폭력행동은 분노를 사용하는 방식 중 분노표출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분노억제의 사용방식은 폭력행동과의 연결성이 쉽게 설명되지 않지만, 억압되거나 회피된 분노가 과도하게 되면 자신과 타인을 향하여 파괴적인 공격성을 보일 수 있으며(P. J. Quartana & J. Burns, 2007), 어느 순간, 분노가 폭발하여 충동적인 폭력행동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이 분노표현 양식은 폭력행동으로 연결되는데 있어 다양한 경로를 가질 수 있으며, 폭력행동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변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불안과 폭력행동의 관계에서 어떠한 분노표현양식이 사용되느냐에 따라 폭력행동이 달라질 가능성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러나 기존의 청소년의 불안과 폭력행동에 관한 연구들은 둘의 관계를 단순 상관관계로만 측정하거나 폭력행동의 기능적 측면을 고려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G. Gwak & E. Mun, 1993; E. Sim, 1999; J. Park, 2003 등). 연구들 대부분이 폭력행동의 유형을 신체적 폭력행동, 언어적 폭력행동, 심리적 폭력행동의 형태로 구분하였기 때문에(K. Kim, 2006), 폭력행동의 동기를 구체화하기 어려웠다. 더군다나 기존 학교폭력 연구 대부분은 일반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J. Kim, K. Lee, 2010; M. Lee, 2001; J. Lee, 2005), 실질적인 학교폭력 가

해 행동을 측정하고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효과적인 학교폭력 근절과 예방을 위해서는 일반청소년 뿐만 아니라 가해 처분을 받은 청소년도 함께 변인연구가 이루어져야 실제적인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가해청소년 고유의 특성을 명확히 드러내기 위하여 일반청소년과의 비교연구가 필요하다. 일반청소년과 가해청소년의 차이가 무엇인지 탐색함으로써 일반청소년과 구분되는 가해청소년의 특성을 더욱 명확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폭력 가해청소년의 불안이 주도적 폭력행동과 반응적 폭력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노표현양식의 매개효과를 일반청소년과 비교하여 검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가해처분을 받은 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불안, 폭력행동, 분노표현양식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고, 주도적 폭력행동과 반응적 폭력행동 경로에 나타난 분노표현양식의 매개효과를 비교 탐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일반청소년과 학교폭력 가해청소년의 불안, 폭력행동, 분노표현양식 간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일반청소년과 학교폭력 가해청소년의 불안이 폭력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노표현양식의 매개 효과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연구의 대상은 학교 및 경찰로부터 폭력신고를 받아 학교폭력 자치위원회로부터 가해학생 처분을 받은 14세에서 19세까지의 청소년 114명과 일반 중·고등학교 학생 178명이다. 연구대상 표집을 위해 먼저 가해청소년 교육 및 상담을 담당하고 있는 시 소속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및 Wee센터, 복지관, 지역 경찰서 등을 통해 연구 협조가 가능한 기관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서울, 경기, 충청, 전라, 경상 지역의 청소년상담지원센터 3곳, Wee센터 3곳, 복지관 2곳, 지역 경찰서 2곳이 연결되어 총 10개의 기관에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을 전달하였다. 가해청소년들은 연구의 참여에 동의한 10개 기관에 상담 및 교육으로 의뢰된 가해학생 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이다. 10개의 각 기관에서 2012년 6월부터 9월까지 연구의 참여에 동의한 가해 청소년 총 135명에게 자기보고식 설문조사가 실시되었고, 불성실·무응답 등의 이유로 분석에 사용할 수 없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 of Violence Adolescent Group (N=114)

Variables		n	%
Gender	Male	88	77.2
	Female	26	22.8
	Total	114	100.0
Grade	Middle school student	66	57.9
	High school student	48	42.1
	Total	114	100.0

Table 2. Demographic Characteristic of General Adolescent Group (N=178)

Variables		n	%
Gender	Male	125	70.2
	Female	53	29.8
	Total	178	100.0
Grade	Middle school student	101	60.1
	High school student	71	39.9
	Total	178	100.0

는 21부를 제외한 114부가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되었다. 일반청소년들은 연구의 참여에 동의한 경기 지역의 공립 남녀공학 중학교 1개교 101명, 서울지역에 위치한 인문계 남자 고등학교 1개교 71명으로, 총 178명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가해청소년 집단 114명의 성별과 중·고생 분포는 <Table 1>과 같고, 일반청소년 집단 178명의 성별과 중·고생 분포는 <Table 2>와 같다. 우선 가해청소년 집단의 남녀 비율은 남학생이 88명(77.2%), 여학생이 26명(22.8%)으로 남학생이 더 많았으며, 중학생이 66명(57.9%), 고등학생이 48명(42.1%)으로 중학생이 더 많았다. 일반 청소년 집단은 가해청소년 집단과의 비교를 위해, 성별과 중·고생의 분포를 가해청소년 집단과 유사하게 표집하였다. 일반 청소년 집단은 남학생이 125명(70.2%), 여학생이 53명(29.8%)으로 가해청소년 집단의 성비와 유사하다. 중·고생 분포도 중학생이 101명(60.1%), 고등학생이 71명(39.9%)으로 가해청소년 집단과 유사한 6:4 정도의 분포를 나타냈다.

2. 측정도구

1) 불안척도

불안척도는 연구대상자의 불안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J. Choi and S. Jo(1990)에 의해 타당화가 이루어진 한국판 RCMAS(Revised Child Manifest Anxiety Scale)를 사용

하였다. 한국판 RCMAS는 Reynold와 Richmond(1978)가 개발한 불안척도를 J. Choi and S. Jo(1990)이 번안하여 표준화한 것으로, 아동, 청소년의 불안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자기보고형 척도이다.

RCMAS는 각 문항에 대해 '예-아니오' 중 하나를 평정하며 '예'를 1점, '아니오'를 0점으로 환산하여 총 점수를 산출하고 그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 증상이 심함을 나타낸다. 총점은 최저 0점에서 최고 28점까지이다. RCMAS는 '과도한 걱정(문항 5, 6, 8, 11, 17, 28번)', '예민함(문항 2, 7, 14, 20, 26번)', '신체수면상의 문제(문항 10, 13, 15, 16, 19, 22, 23번)', '부정적 정서 및 주의력 문제(문항 1, 3, 4, 9, 12, 18, 21, 24, 25, 27번)'와 관련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총 37개 문항 중 28개 문항이 불안척도, 나머지 9문항은 허구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허구척도는 검사의 타당성을 고려하기 위해 설정된 항목들로, '나는 항상 착하다', '나는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등의 내용이다. 본 연구에서는 허구척도를 제외한 불안척도만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90이었다.

2) 폭력행동 척도

학교폭력 가해청소년의 폭력행동의 유형과 빈도를 알아보기 위해 사용한 척도는 기존의 폭력 행동이나 비행, 공격행동을 측정하는 문항들을 바탕으로 J. Lee(2005)이 구성하여 타당화한 폭력행동 척도이다. 폭력행동 척도는

최근 6개월 동안 행했던 폭력행동에 대해 폭력행동의 빈도를 '한 번도 없었다(0점)'에서 '7번 이상(4점)'의 5점 척도에 자기보고로 응답하는 것이다.

본 척도는 위협이나 협박(문항 1, 2, 3, 4번), 금품 갈취(문항 5번), '신체적 폭력(문항 6, 7, 8, 9, 10번)' 등의 외현화된 폭력 행동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10개의 동일한 문항을 반응적 폭력행동의 상황과 주도적 폭력행동의 상황으로 나누어 응답하게 되어 있다. 반응적 폭력행동은 '위협이나 분노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 행사한 폭력행동에 대해 응답하는 것이고, 주도적 폭력행동은 '기분과는 상관없이, 위협이 없는 상황에서' 행사한 폭력행동에 대해 응답하여 폭력행동 빈도를 알아보는 것이다. 주도적 폭력행동과 반응적 폭력행동 각 요인별 점수는 0점에서 40점까지 측정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주도적 폭력행동과 반응적 폭력행동 모두 .92였다.

3) 분노표현양식 척도

연구대상자의 분노표현양식을 측정하기 위해 Spielberger, Krasner and Solomon(1988)이 제작한 상태-특성 분노표현 척도를 G. Jun, D. Han, J. Lee & Spielberger(1997)가 한국판으로 개발한 STAXI-K (Korean Adaptation of the 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를 사용하였다.

STAXI-K는 상태 분노(10문항)와 특성분노(10문항)의 수준, 분노표현 양식(24문항)을 측정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상태분노(state anger)는 일시적인 정서 상태를 평가하며, 특성 분노(trait anger)는 얼마나 자주 분노를 경험하는가를 평가한다. 분노표현양식은 분노억제(문항 3, 5, 6, 10, 13, 16, 17, 21), 분노표출(문항 2, 7, 9, 12, 14, 19, 22, 23), 분노조절(문항 1, 4, 8, 11, 15, 18, 20, 24)척도가 각 8문항씩 구성되어 있다. 분노표현양식은 Likert형 4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고, 점수는 요인 별로 각 8점에서 32점 까지 측정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그 특성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목적에 따라 상태분노와 특성분노 척도를 제외하고 분노표현양식의 분노조절, 분노표출, 분노억제 척도만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분노억제가 .84, 분노표출이 .83, 분노조절이 .84로 나타났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위해 다음과 같이 통계 처리하였다.

첫째, 변인 간의 관계에 관해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표

본크기가 분석에 적합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G*Power 3.1.5를 사용하여 검증력 분석을 실시하였다. G*Power 3.1.5는 사회과학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는 검증력 분석(power analysis)프로그램으로 통계검증에서 검증력의 크기나 분석에 필요한 표본 수 등을 계산할 때 사용된다(F. Faul, E. Erdfelder, A. Buchner, & A. Lang, 2009). 그 결과 효과크기(effect size) 0.15, 유의수준(α) 0.05일 때, Cohen(1988)이 주장한 검증력의 기준인 .80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표본의 수는 85명이었다. 즉, 표본 144명은 95%의 유의도 수준에서 분석에 필요한 최소 표본수보다 많아 검증에 적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SPSS 18.0을 이용해 문항별 평균, 표준편차, 문항-전체 간 상관을 알아보는 문항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신뢰도 분석, 빈도분석, 기술통계, Pearson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일반청소년과 학교폭력가해청소년의 불안이 폭력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노표현양식의 매개효과를 탐색하기 위해서 AMOS 16.0을 통해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때 요인별 문항-전체 간 상관 및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문항 전체 간 상관계수 .4 미만, 요인의 계수를 1로 지정하였을 때 요인 부하량 .5 미만인 문항을 삭제하고, 나머지 문항을 통해 문항꾸러미(item parcelling)를 제작하여 지표변수로 사용하였다(Bandalos, 2002).

넷째, 통계적 검증모형의 추정방법을 결정하고자 왜도, 첨도의 검증을 통한 측정변인 간의 다변인정규분포성을 확인하고 최대우도추정(ML: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방법을 적용하여 구조방정식모형의 부합도와 모수치를 추정하였다.

다섯째, 변인 간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부트스트래핑법(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불안과 폭력행동, 분노표현양식의 기술통계와 차이

주요변수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학교폭력 가해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불안, 폭력행동, 분노표현양식의 정도를 측정하고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해청소년의 불안은 0-28점의 응답범위 중 평균 12.60점($SD=6.27$)으로 나타났고, 일반청소년은 0-28점의 응답범위 중 평균 10.92점($SD=6.06$)으로 나타나 가해청소년의 불안이 일반청소년보다 유의하게 높았다($t=2.31, p<.01$). 폭력행동을 반응적 폭력행동과 주도적 폭력행동으로 구

분하여 살펴보면, 가해청소년은 0-40점의 응답범위 중 반응적 폭력행동 평균이 10.10점($SD=7.67$), 주도적 폭력행동이 7.44점($SD=6.82$)이었고, 일반청소년은 0-40점의 응답범위 중 반응적 폭력행동 평균이 4.11점($SD=5.53$), 주도적 폭력행동 평균이 2.41점($SD=4.60$)으로 나타나 가해청소년의 반응적 폭력행동이 일반청소년보다 유의하게 높았고($t=5.65, p<.001$) 주도적 폭력행동도 가해청소년이 유의하게 높았다($t=4.46, p<.01$). 가해청소년의 분노표현양식은 각 8-32점의 응답범위 중 분노억제가 평균 14.83점($SD=4.93$), 분노표출이 평균 16.85점($SD=4.86$), 분노조절이 평균 17.07점($SD=5.12$)로 나타났으며 일반청소년의 분노표현양식은 각 8-32점의 응답범위 중 분노억제가 평균 15.52점($SD=4.43$), 분노표출이 평균 15.79점($SD=4.24$), 분노조절이 평균 22.21점($SD=5.41$)로 나타났다. 분노표현양식에서 가해청소년 집단과 일반청소년 집단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것은 분노조절양식이다. 가해 청소년의 분노조절 평균 점수는 17.07점으로 일반청소년의 분노조절 평균 점수 22.21점보다 유의하게 낮았다($t=-3.95, p<.01$).

2. 불안과 폭력행동, 분노표현양식 간의 상관관계

학교폭력 가해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불안, 폭력행동 및 분노표현 양식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적률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Table 3>과 같이 변인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

가 나타났다.

먼저, 학교폭력 가해청소년의 불안은 반응적 폭력행동($r=.23, p<.05$), 분노억제($r=.44, p<.01$)간에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반청소년의 불안은 폭력행동과의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고, 분노표출($r=.29, p<.01$)과 분노억제($r=.41, p<.01$)간에만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다음으로, 학교폭력 가해청소년의 반응적 폭력행동은 주도적 폭력행동($r=.73, p<.01$), 분노표출($r=.20, p<.05$), 분노억제($r=.44, p<.01$)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주도적 폭력행동은 분노표출($r=.23, p<.05$)간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고, 분노조절($r=-.24, p<.05$)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일반청소년은 가해청소년과 마찬가지로 반응적 폭력행동이 주도적 폭력행동($r=.73, p<.01$), 분노표출($r=.26, p<.01$)과 정적 상관을 보이지만, 분노억제 간의 상관은 나타나지 않았다. 일반청소년의 주도적 폭력행동의 경우도 가해청소년처럼 분노표출($r=.19, p<.05$)간의 정적 상관이 나타났지만, 분노조절간의 부적 상관은 나타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 가해청소년의 분노표출은 분노억제($r=.39, p<.01$)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분노조절($r=-.20, p<.05$)과는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일반청소년의 분노표출은 분노억제($r=.56, p<.01$)와 정적 상관을 나타내고, 분노억제는 분노조절($r=.23, p<.01$)과 정적 상관이 나타나 가해청소년과 달리 분노조절과의 부적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3. Correlations

		1	2	3	4	5	6
Adolescent School Violence Offenders (N=114)	1. Anxiety	1					
	2. Reactive Violent Behavior	.23*					
	3. Proactive Violent Behavior	-.02	.73**				
	4. Anger Out	.03	.20*	.23*			
	5. Anger In	.44**	.19*	-.05	.39**		
	6. Anger Control	.06	-.08	-.24*	-.20*	.04	
		1	2	3	4	5	6
General Adolescent (N=178)	1. Anxiety	1					
	2. Reactive Violent Behavior	.08					
	3. Proactive Violent Behavior	.04	.73**				
	4. Anger Out	.29**	.26**	.19*			
	5. Anger In	.41**	.09	.14	.56**		
	6. Anger Control	-.08	-.06	.02	-.02	.23**	

* $p < .05$, ** $p < .01$

3. 불안이 폭력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분노표현양식의 매개효과 검증

일반청소년과 학교폭력 가해청소년의 불안이 폭력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분노표현양식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이론적 고찰을 통해 가해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가설적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폭력행동을 반응적 폭력행동과 주도적 폭력행동으로 유형화함에 따라 가설적 연구모형도 반응적 폭력행동으로 진행되는 경로와 주도적 폭력행동으로 진행되는 경로를 구분하여 설정하였다. 반응적 폭력행동에 대한 가설적 연구모형은 <Figure 1>과 같고, 주도적 폭력행동에 대한 가설적 연구모형은 <Figure 2>와 같다. 다음으로 설정된 연구모형의 통합적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여기에서 2단계 접근법(two-step approach)을 사용하였는데, 2단계 접근법은 측정모형의 확인과 구조회귀모형 분석으로 나누어 순차적 검증을 진행하는 것이다 (Anderson & Gerbing, 1992).

1) 측정모형의 검증

(1) 다변인정규분포성 검증

측정 모형의 검증을 위한 확인적 요인분석에 앞서, 모형 구성을 위한 문항꾸러미를 제작하여 다변인정규분포성을 검증하였다. 문항꾸러미를 제작해 모형을 구성하는 이유는, 개별 문항을 사용해 잠재변인을 구인할 경우 너무 많은 모수를 추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음 문항꾸러미를 통해 구성된 지표변수들의 왜도와 첨도를 확인하고,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파악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단변인 별 왜도는 .02-1.81, 첨도는 -.07-2.72 사이의 분포로 다변인정규분포성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왜도 3 이하, 첨도 7 이하 일 때 정규분포를 가정할 수 있으며(Decarlo, 1997; Kline, 2005), 이에 따라 최대우도추정(ML: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방법을 적용하여 측정모형의 적합도 확인 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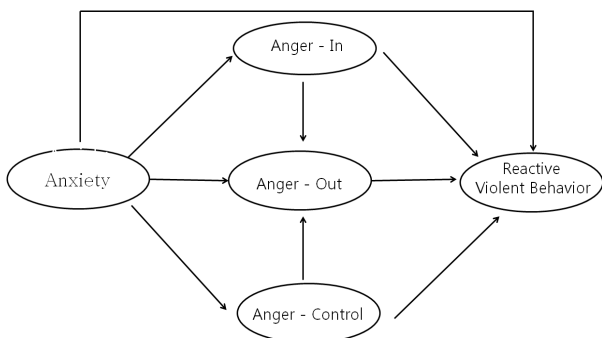


Figure 1. Reactive Violent Behavior Hypothetic Model

모수치 추정을 실시하였다.

(2) 모형적합도 검증

본 연구에서는 RMSEA, TLI와 CFI를 통해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RMSEA는 표본 크기에 민감하고, 평가설이 상당히 엄격한 χ^2 검증보다는 표본크기에 민감하지 않고 TLI와 CFI 지수뿐만 아니라 모형의 간명성까지 고려한 지수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TLI와 CFI가 .90이상, SRMR가 .08이하이면 좋은 적합도라고 할 수 있고,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RMSEA의 경우 .05보다 작으면 좋은 적합도, .05에서 .08 사이는 괜찮은 적합도, .08에서 .10 사이는 보통 적합도, .10보다 클 경우 나쁜 적합도인 것으로 기준이 제시되고 있다(S. Hong, 2000).

이상의 기준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측정모형 적합도를 확인한 결과, 모든 적합도 지수가 해석기준에 양호하게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청소년의 반응적 폭력행동에 대한 측정모형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면, TLI = .95, CFI = .96, SRMR = .07, RMSEA = .05로 나타났다. 또 일반청소년의 반응적 폭력행동에 대한 측정모형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면, TLI = .94, CFI = .95, SRMR = .06, RMSEA = .05로 나타났다.

다음, 가해청소년의 주도적 폭력행동에 대한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면, TLI = .91, CFI = .94, SRMR = .07, RMSEA = .07로 나타났다. 또 일반청소년의 주도적 폭력행동에 대한 측정모형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면, TLI = .92, CFI = .94, SRMR = .06, RMSEA = .05로 나타났다.

(3) 수렴타당도 및 변별타당도 검증

수렴 타당도 검증을 통해 잠재변인의 구성이 타당한지 확인하기 위해 모든 지표변수들이 각자 속해있는 잠재변수에 대한 요인부하량을 알아보았다. 측정모형들의 잠재변수에 대해 .51 이상의 요인부하량이 나타났다. 수렴타당도는 지표변수들이 각자 속해있는 잠재변수에 대해 .50이상(S. Moon, 2009; Kline, 2011)이 되어야 유의미한 값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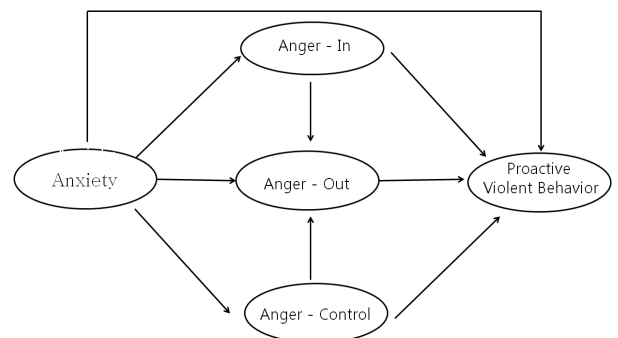


Figure 2. Proactive Violent Behavior Hypothetic Model

가진다.

마지막으로 변별타당도 검증을 위해 각 잠재변수 간의 상관계수를 확인한 결과 각 잠재변수 간의 상관계수가 .85 이하인 .25 - .73 사이의 분포를 보여 변별타당도 역시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반적으로 상관계수가 .85 이하일 때 변별타당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S, Moon, 2009; Kline, 2011).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단계인 구조회귀모형검증을 실시하였다.

2) 구조회귀모형의 검증

(1) 반응적 폭력행동에 대한 구조회귀모형의 검증

① 가해청소년의 반응적 폭력행동에 대한 구조회귀모형 검증

가해청소년의 불안이 반응적 폭력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분노표현양식의 매개효과를 탐색하기 위해 AMOS 16.0을 이용해 구조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가해청소년의 반응적 폭력행동에 대한 구조회귀모형 검증 결과는 아래 <Figure 3>과 같다. 먼저, 구조회귀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면, TLI = .96, CFI = .96, SRMR = .07, RMSEA = .05로 나타났다. 이것으로 <Table 4>와 같이 모든 적합도 지수가 해석 기준에 양호하게 부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인 적합도 해석 기준은 TLI와 CFI가 .90이상, RMSEA와 SRMR이 .08이하이다. 이에 따라 연구모형의 모수치를 추정된 결과는 <Figure 3>과 같다. 각 경로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여 가설적 연구모형과 비교했을 때, 분노억제가 반응적 폭력으로 향하는 경로를 제외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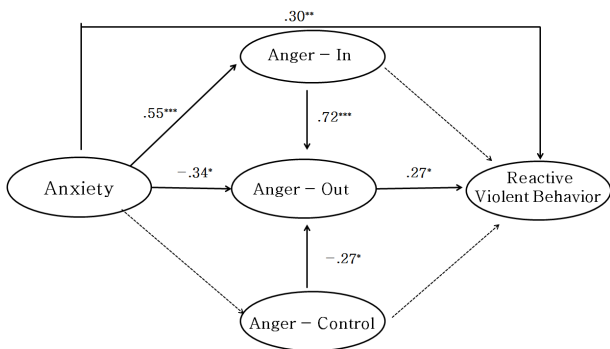


Figure 3. Structural Model for Reactive Violence Behavior of Violence Adolescent

모든 경로에서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형 내 모수추정치에 나타난 변인 간 직접적인 영향을 살펴보면, 불안은 분노억제($\beta=.55, p<.001$)와 반응적 폭력행동($\beta=.30, p<.01$)에 정적 영향을 미치며, 분노표출($\beta=-.34, p<.01$)에는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불안이 높을수록 분노를 억제하고 반응적 폭력행동이 증가하며, 분노표출은 감소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분노억제는 분노표출($\beta=.72, p<.001$)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분노표출은 반응적 폭력행동($\beta=.27, p<.05$)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분노를 표출할수록 반응적 폭력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분노조절은 분노표출에 부적 영향($\beta=-.27, p<.05$)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분노를 조절할수록 분노표출은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의 결과를 정리하면, 가해청소년은 불안이 높을수록 반응적 폭력행동을 행사하고, 분노를 억제하며, 분노표출은 감소한다. 그러나 분노를 억제할수록 분노표출이 증가하면서 반응적 폭력행동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구조회귀모형의 표준화된 총 효과뿐 아니라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부트스트래핑법(bootstrapping)을 통한 총 간접효과의 유의도를 살펴보았다. 부트스트래핑을 이용한 각 변인의 직접 효과와 간접 효과 및 총 효과에 대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분석 결과, 불안은 간접적으로 분노억제를 매개로 하여 분노표출에 정적 영향($\beta=.39, p<.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분노억제는 분노표출을 매개로 하여 반응적 폭력행동에 간접적인 정적 영향($\beta=.18, p<.05$)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일반청소년의 반응적 폭력행동에 대한 구조회귀모형 검증

가해청소년과 비교하여 일반청소년의 불안이 반응적 폭력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분노표현양식의 매개효과를 탐색하기 위해 AMOS 16.0을 이용해 구조회귀분석을 실시한 검증 결과는 아래 <Figure 4>와 같다. 먼저,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면, TLI = .93, CFI = .94, SRMR = .07, RMSEA = .05로 나타났다. 이것으로 <Table 6>과 같이 모든 부합도 지수가 해석 기준에 양호하게 부합하는 것을 확인할 수

Table 4. Model Fit for Reactive Violence Behavior of Violence Adolescent

(N=114)

Model	NPAR	DF	CMIN	TLI	SRMR	CFI	RMSEA(.05)	
							LO90	HI90
	36	84	106.35	.96	.07	.96	.00	.08

Table 5. Bootstrapping (Reactive Violence Behavior of Violence Adolescent) (N=114)

Path		Direct effects	Indirect effects	Total Effects
Anxiety	→ Anger In	.55***		.55
Anxiety	→ Anger Out	-.34*	.39**	.05
Anxiety	→ Reactive Violent Behavior	.30**	.01	.31
Anger In	→ Anger Out	.72***		.72
Anger In	→ Reactive Violent Behavior		.18*	.18
Anger Control	→ Anger Out	-.27*		-.27
Anger Control	→ Reactive Violent Behavior		-.07	-.07
Anger Out	→ Reactive Violent Behavior	.27*		.27

* $p < .05$, ** $p < .01$

Table 6. Model Fit for Reactive Violence Behavior of General Adolescent (N=178)

NPAR	DF	CMIN	TLI	SRMR	CFI	RMSEA(.05)	
						LO90	HI90
40	131	199.27	.93	.07	.94	.04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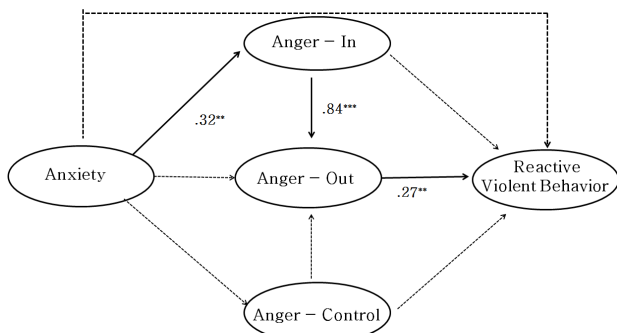


Figure 4. Structural Model for Reactive Violence Behavior of General Adolescent

있다.

이에 따라 <Figure 4>와 같이 연구모형의 모수치를 추정하였다. 일반청소년의 연구모형 내 모수추정치에 나타난 변인 간 직접적인 영향을 살펴보면, 불안은 분노억제 ($\beta = .32, p < .01$)에 정적 영향을 미치며, 분노억제는 분노표출 ($\beta = .84, p < .001$)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분노표출은 반응적 폭력행동 ($\beta = .27, p < .01$)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불안이 높을수록 분노가 억제되고, 분노억제의 증가는 분노표출에 영향을 미치며, 분노표출이 증가할수록 반응적 폭력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가해청소년의 반응적 폭력행동 경로에서 나타난 불안이 분노억제를 거쳐 분노표출을 증가시키고 이것이 다시 반응적 폭력행동에 이르는 경로와 유사한 것이다. 그러나 일반청소년의 불안은 반응적 폭력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불안과 분노조절이 분노표출을 감소시키는 경로도 나타나지 않아 가해청소년의 경로와 차이를 보였다.

다음으로 구조회귀모형의 표준화된 총 효과 및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부트스트래핑법을 통한 유의도를 살펴보았다. 부트스트래핑을 이용한 각 변인의 직접 효과와 간접 효과 및 총 효과에 대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분석 결과, 불안은 간접적으로 분노억제를 매개로 하여 분노표출에 정적 영향 ($\beta = .27, p < .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분노억제는 분노표출을 매개로 하여 반응적 폭력행동에 간접적인 정적 영향 ($\beta = .22, p < .05$)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주도적 폭력행동에 대한 구조회귀모형의 검증

① 가해청소년의 주도적 폭력행동에 대한 구조회귀모형 검증

가해청소년의 불안이 주도적 폭력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분노표현양식의 매개효과를 탐색하기 위해 AMOS 16.0을 이용해 구조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아래 <Fi-

Table 7. Bootstrapping (Reactive Violence Behavior of Gernal Adolescent) (N=178)

Path	Direct ffects	Indirect ffects	Total Effects
Anxiety → Anger In	.32**		.32
Anxiety → Anger Out		.27**	.27
Anxiety → Reactive Violent Behavior		.07	.07
Anger In → Anger Out	.84***		.84
Anger In → Reactive Violent Behavior		.22*	.22
Anger Out → Reactive Violent Behavior	.27**		.27

*p < .05, **p < .01

Table 8. Model Fit for Proactive Violence Behavior of Violence Adolescent (N=114)

NPAR	DF	CMIN	TLI	SRMR	CFI	RMSEA(.06)	
						LO90	HI90
35	85	120.21	.94	.07	.95	.03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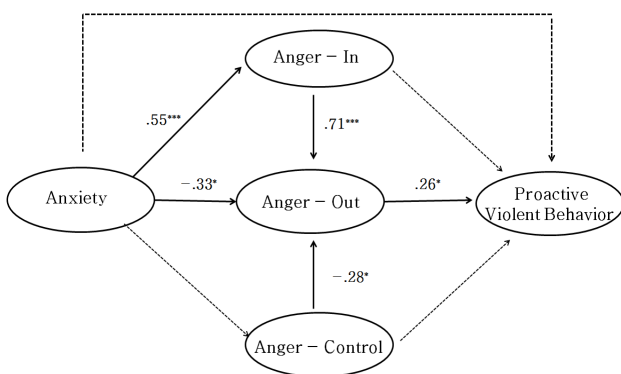


Figure 5. Structural Model for Proactive Violence Behavior of Violence Adolescent

Figure 5>와 같다. 먼저, 구조회귀모형의 적합도지수를 살펴보면, TLI = .94, CFI = .95, SRMR = .07, RMSEA = .06으로 나타났다. 이것으로 <Table 8>과 같이 모든 적합도 지수가 해석 기준에 양호하게 부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연구모형의 모수치를 추정된 결과는 <Figure 5>와 같다. 각 경로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여 가설적 연구모형과 비교했을 때, 불안이 주도적 폭력행동으로 향하는 경로와 분노억제가 주도적 폭력행동으로 향하는 경로를 제외한 모든 경로에서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해청소년의 주도적 폭력행동 연구모형 내 모수추정치에 나타난 변인 간 직접적인 영향을 살펴보면 첫째, 불안은 분노억제($\beta = .55, p < .001$)에 정적 영향을 미치며, 분

노표출($\beta = -.33, p < .01$)에는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불안이 높을수록 분노억제를 사용하고, 분노표출은 감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분노억제는 분노표출($\beta = .71, p < .001$)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분노억제가 분노표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분노표출은 주도적 폭력행동($\beta = .26, p < .05$)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분노조절은 분노표출에 부적 영향($\beta = -.28, p < .05$)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분노를 표출할수록 주도적 폭력행동이 증가하며, 분노조절을 사용할수록 분노표출은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구조회귀모형의 표준화된 총 효과뿐 아니라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부트스트래핑법을 통해 총 간접효과의 유의도를 살펴보았다. <Table 9>에서 나타난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를 살펴보면, 불안은 간접적으로 분노억제를 매개로 하여 분노표출에 정적 영향($\beta = .39, p < .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분노억제가 분노표출을 매개로 하여 주도적 폭력행동에 간접적인 정적 영향($\beta = .18, p < .05$)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일반청소년의 주도적 폭력행동에 대한 구조회귀모형 검증

일반청소년의 불안이 주도적 폭력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분노표현양식의 매개효과를 탐색하기 위해 AMOS 16.0을 이용해 구조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아래 <Figure 6>과 같다. 먼저, 구조회귀모형의 적합도지수를 살펴보면, TLI = .92, CFI = .93, SRMR = .07, RMSEA = .06으로

Table 9. Bootstrapping (Proactive Violence Behavior of Violence Adolescent) (N=114)

Path	Direct ffects	Indirect ffects	Total Effects
Anxiety → Anger In	.55***		.55
Anxiety → Anger Out	-.33*	.39**	.06
Anxiety → Proactive Violent Behavior		.01	.01
Anger In → Anger Out	.71***		.71
Anger In → Proactive Violent Behavior		.18*	.18
Anger Control → Anger Out	-.28*		-.28
Anger Control → Proactive Violent Behavior		-.07	-.07
Anger Out → Proactive Violent Behavior	.26*		.26

* $p < .05$, ** $p < .01$, *** $p < .001$

Table 10. Model Fit for Proactive Violence Behavior of General Adolescent (N=178)

NPAR	DF	CMIN	TLI	SRMR	CFI	RMSEA(.06)	
						LO90	HI90
40	131	207.53	.92	.07	.93	.04	.07

Table 11. Bootstrapping (Proactive Violence Behavior of General Adolescent) (N=178)

Path	Direct ffects	Indirect ffects	Total Effects
Anxiety → Anger In	.32**		.32
Anxiety → Anger Out		.27**	.27
Anxiety → Proactive Violent Behavior		.05	.05
Anger In → Anger Out	.86***		.86
Anger Out → Proactive Violent Behavior		.17*	.17
Anger Out → Proactive Violent Behavior	.20*		.20

**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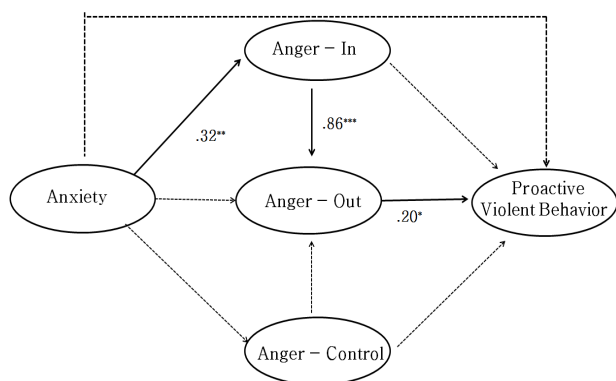


Figure 6. Structural Model for Proactive Violence Behavior of General Adolescent

나타났다. 이것으로 <Table 10>과 같이 모든 적합도 지수가 해석 기준에 양호하게 부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반청소년의 연구모형 내 모수추정치에 나타난 변인 간 직접적인 영향을 살펴보면<Figure 6>과 같다. 불안은 분노억제($\beta=.32, p<.01$)에 정적 영향을 미치며, 분노억제는 분노표출($\beta=.86, p<.001$)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분노표출은 주도적 폭력행동($\beta=.20, p<.01$)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심리적 불안이 높을수록 분노를 억제하고, 분노억제의 증가는 분노표출을 증가시키며, 이 분노표출이 증가할수록 주도적 폭력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일반청소년의 반응적 폭력행동 모형

과 같은 경로이다. 이로서 일반청소년의 경우에는 반응적 폭력행동의 경로와 주도적 폭력행동의 경로 방향이 차이가 없는 것이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일반청소년의 주도적 폭력행동 구조회귀모형의 표준화된 총 효과뿐 아니라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부트스트래핑법을 통해 유의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11>과 같다. 심리적 불안은 간접적으로 분노억제를 매개로 하여 분노표출에 정적 영향($\beta=.27, p<.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분노억제가 분노표출을 매개로 하여 주도적 폭력행동에 간접적인 정적 영향($\beta=.17, p<.05$)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폭력 가해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불안이 반응적 폭력행동과 주도적 폭력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노표현양식의 매개효과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학교폭력 가해처분을 받은 청소년 114명과 일반청소년 178명을 대상으로 폭력행동 경로에서 나타난 분노표현양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폭력 가해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불안, 폭력행동, 분노표현양식 간의 상관을 분석한 결과, 가해청소년집단과 일반청소년집단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나타났다. 먼저 본 연구에서 나타난 학교폭력 가해청소년과 일반청소년 집단의 공통점은 두 집단 모두 불안과 분노억제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또, 반응적 폭력행동과 주도적 폭력행동 간의 높은 정적 상관과 함께 두 폭력행동 모두 분노표출과 유의한 정적상관이 나타났고, 이 분노표출은 분노억제 간에 정적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불안이 높은 청소년은 분노를 억제할 수 있으며, 분노를 억제하는 청소년은 분노표출도 함께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분노를 표출할수록 폭력행동이 증가할 수 있으며, 반응적 폭력행동과 주도적 폭력행동은 매우 높은 상관을 가진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결과는 불안이 분노와 정적 상관을 보인다는 H. Lee(2000)의 연구와 같은 결과이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불안이 분노억제와 정적 상관을 가지지만, 이 분노억제는 분노표출과도 정적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에서 청소년의 불안은 분노억제와 상관을 보이며, 분노억제는 결국 분노표출과 연결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반응적 폭력행동과 주도적 폭력행동의 높은 상관관계는 반응적 폭력행동과 주도

적 폭력행동의 연결성을 주장한 J. Lee(2005)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것은 반응적 폭력행동과 주도적 폭력행동이 연결되어 행해지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다음으로 학교폭력 가해청소년과 일반청소년집단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가해청소년은 불안 및 분노억제와 반응적 폭력행동 간의 상관관계가 있었지만, 일반청소년은 불안과 반응적 폭력행동 간의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즉, 일반청소년은 불안하다고 해서 꼭 반응적 폭력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가해청소년의 분노억제와 반응적 폭력행동 간의 정적 상관은 억압되거나 회피된 분노가 과도하게 되면 파괴적인 공격성을 보일 수 있다는 Quartana et al.(2007)의 주장과 관련지을 수 있다. 억제되었던 분노가 어느 순간 폭발하여 충동적인 폭력행동으로 표출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그리고 학교폭력 가해청소년의 분노조절이 주도적 폭력행동 및 분노표출양식과 부적 상관이 나타난 것과 달리 일반청소년의 분노조절은 분노억제 간의 정적 상관만 나타났다. 즉, 분노조절양식을 사용하는 가해청소년일수록 주도적 폭력행동과 분노표출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해청소년의 주도적 폭력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분노조절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 가해청소년의 불안과 반응적 폭력행동의 정적 상관, 주도적 폭력행동과 분노조절의 부적 상관이 나타난 본 연구 결과에 따라 반응적 폭력행동을 많이 행사하는 가해청소년에게는 불안에 대한 개입을, 주도적 폭력행동을 많이 하는 가해청소년에게는 분노조절에 대한 개입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둘째, 학교폭력 가해청소년과 일반청소년 모두 불안이 분노억제와 분노표출을 매개로 하여 폭력행동에 이르는 경로가 동일하게 나타났다. 즉, 청소년은 불안이 높아지면 분노를 억제하게 되고, 억제된 분노가 과도하게 되면 분노표출이 증가하면서 폭력행동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경로는 가해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폭력행동 경로 모두에서 가장 주된 매개효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폭력행동과 분노표출의 관련성만을 예상하지만, 분노표출의 이면에 분노억제의 영향이 작용한다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다.

반면 가해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폭력행동 경로에서 나타난 가장 큰 차이점은 일반청소년의 불안이 폭력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것과 달리 가해청소년의 불안은 반응적 폭력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즉, 일반청소년은 불안이 높아진다고 해서 폭력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해청소년들은 불안이 높아지면 반응적 폭력행동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가해청소년들은 정서적 불안을 바로 폭력행동으로 외현화할 수 있지

만, 일반청소년은 불안하다고 해서 이것을 바로 폭력행동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가해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폭력행동 경로에서 가해청소년의 불안은 주도적 폭력행동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반응적 폭력행동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나타났다. 반응적 폭력행동은 충동적이고 정서적인 특징을 가지며, 위협 상황에 대한 일종의 분노반응 및 방어적인 행동이다. 이에 비해 주도적 폭력행동은 타인이 촉발하거나 분노 때문에 하는 행동이 아니라 타인을 지배하거나 군림하기 위한 행동이다(Vitiello & Stoff, 1997). 가해청소년의 불안이 반응적 폭력행동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만 주도적 폭력행동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것에서 불안이 폭력행동을 증가시키는가의 여부를 폭력행동의 유형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으로 학교폭력 가해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폭력행동 경로에서 나타난 두 번째 차이점은 일반 청소년과 달리 가해청소년은 분노조절이 분노표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점이다. 따라서 가해청소년의 분노표출이 감소되는 경로는 두 가지로 나타났는데 불안이 높거나 분노를 조절할 때이다. 즉, 가해청소년의 분노표출이 폭력행동으로 향하는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가해청소년의 불안과 분노조절에 대한 접근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결과에서 학교폭력 가해청소년의 불안이 폭력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세 가지 경로를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불안이 높아짐에 따라 분노가 억제되고, 억제된 분노가 과도해지면 분노표출이 증가하면서 폭력행동이 증가되는 경로이다. 두 번째 경로는 불안이 높아지면 반응적 폭력행동이 증가되는 경로이다. 세 번째 경로는 불안이 높거나 분노조절이 증가하여 분노표출이 감소되는 경로이다. 즉, 가해청소년의 불안은 직접적으로 반응적 폭력행동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분노표현양식의 개입에 따라 폭력행동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가정이 가능해진다. 불안이 증가하여 분노가 억제되면 분노표출이 많아지지만, 불안이 증가하여 분노표출이 감소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 분노표출은 폭력행동의 증가와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가해청소년의 이와 같은 폭력행동 경로에서 불안에 대한 기존 연구들(Goodwin & Hamilton, 2003; Lambert, Ialongo, Boyd, & Cooley, 2005; Wolff & Ollendic, 2006)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것을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즉, 불안이 폭력행동을 증가시킨다는 것과 불안이 폭력행동을 감소시킨다는 불일치한 결과의 원인을 찾아 볼 수 있다. 불안이 폭력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어떤 분노표현양식이 개입되는가에 따라 폭력행동의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

다. 따라서 가해청소년의 폭력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무엇보다 분노표현양식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가해청소년의 분노표출을 증가시키는 분노억제에 대한 개입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분노표출을 감소시킬 수 있는 분노조절 교육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의 불안과 폭력행동에 대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원인을 탐색하였다는 것과 이와 같은 원인을 분노표현양식의 매개효과로 설명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즉, 분노표현양식의 개입에 따라 불안이 폭력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탐색하였다. 본 연구의 분노억제와 분노조절의 매개적 역할에 대한 결과는 학교폭력 가해청소년을 위한 효과적인 분노관리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본다. 또한 학교폭력 가해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실증적 연구가 부족한 현실에서 실제로 학교폭력 가해처분을 받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폭력행동 연구를 하였다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이와 같은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첫째, 본 연구 대상의 표집에 있어서 학교폭력 가해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모집환경을 동일하게 설정하지 못한 점이다. 가해청소년의 표집의 어려움으로 인해 전국 단위의 처분 상담 및 교육 장면에서 그룹으로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일반청소년은 그룹 단위로 조사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기 어려워 서울 경기권에서 학급단위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또한 가해청소년 성비를 조정하여 설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반청소년의 성비를 동일하게 맞추지 못하여 유사한 비율로만 설정하였다. 이와 같은 가해청소년과 일반청소년 집단의 차이점으로 인해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성별을 통제하지 못해 가해청소년의 성별차이에 따른 특성을 파악하지 못했다. 가해처분을 받은 가해청소년들의 성비가 남학생이 주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 가해청소년의 성비를 고려한 표집을 통해 성별에 따른 특징연구가 진행된다면 가해청소년 연구가 더욱 확장될 것으로 본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가해청소년의 연령별 차이를 고려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가해청소년을 중학생과 고등학생으로만 구분하여 우울 및 불안과 분노표현양식, 폭력행동을 탐색하였기 때문에 연령별로 구체화된 가해청소년 특징을 파악하지 못했다. 후속연구에서는 연령별 특징을 고려하여 가해청소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가해청소년에 대한 실제적 이해가 부족한 교육 및 상담현장에 가해청소년의 특성에 대한 이해와 폭력행동 감소를 위한 방안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REFERENCES

- Anderson, J. C., & Gerbing, D. W. (1992). Assumptions and comparative strengths of the two-step approach: Comment on Fornell and Yi.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20(1), 321-333.
- Bailey, C. A., & Ostrove, J. M. (2008). Differentiating forms and functions of aggression in emerging adults: Associations with the hostile attribution biases and normative belief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7, 713-722.
- Bandalos, D. L. (2002). The effects of item parcelling on goodness-of-fit and parameter estimate bia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9, 78-102.
- Beck, A. T. (2000). *Prisoner of hate: The cognitive basis of anger, hostility, and violence*. New York: Perennial.
- Choi, J., & Jo, S. (1990). Reliability and Validity of Revised Children's Manifest Anxiety Scale : Assessment of Anxiety in Children. *Journal of The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29(3), 691-701.
- Clarey, A., Hokoda, A., & Ulloa, E. C. (2010). Anger Control and Acceptance of Violence as Mediator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xposure to interparental Conflict and Dating Violence Perpetration in Mexican Adolescents. *Journal of family violence*, 25(7), 619-625.
- Cohen, J. (1988).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2nd ed).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 Decarlo, L. T. (1997). On the meaning and use of kurtosis. *Psychological Methods*, 2, 292-307.
- Elliott, G. C., Cunningham, S .M., & Colangelo, M. (2011). Perceived mattering to the family and physical violence within the family by adolescents. *Journal of Family Issues*, 32(8), 1007-1029.
- Ellonen, N., Kaariainen, J., Sariola, H., & Helweg, L. (2011). Adolescents' Experiences of Parental Violence in Danish and Finnish Families: A Comparative Perspective, *Journal of Scandinavian Studies In Criminology*, 12(2), 173-197.
- Ferguson, C. J. (2011). Video Games and Youth Violence: A Prospective Analysis in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0(4), 377-391.
- Frazier, P. A., Tix, A. P., & Barron, K. E. (2004). Testing moderator and mediator effects in counseling psychology resear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1, 115-134.
- Faul, F., Erdfelder, E., Buchner, A., & Lang, A.-G. (2009). Statistical power analyses using G*Power 3.1: Tests for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es. *Behavior Research Methods*, 41, 1149-1160.
- Gilbert, F., & Daffern, M. (2010). Integrating contemporary aggression theory with violent offender treatment: How thoroughly do interventions target violent behavior?.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15(3), 167-180.
- Goodwin, R. D., & Hamilton, S. P. (2003). Lifetime comorbidity of 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 and anxiety disorders among adults in the community. *Psychiatry Research*, 117, 159-166.
- Gwak, G. J & Mun, E. Y. (1993). between psychological characteristic and gloom and flight.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6(2), 29-43.
- Hong, S. (2000). The Criteria for Selecting Appropriate Fit Indice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d Their Rationales.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9(1), 161-177.
- Jang, D., Lee, G., Min, B. (1985). An Inter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 Delinquency and Their Depressive and Trends. *Chungang journal of medicine*, 10, 405-422.
- Jankauskiene, R., Kardelis, K., Sukys, S., & Kardeliene, L. (2008). Associations between school bullying and psychosocial factors.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an international journal*, 36(2), 145-162.
- Jin, H., & Bhe, S. (2012). A meta-analysis on the variables related with juvenile delinquency.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14(2), 193-221.
- Jo, C. B. (2008). *A study on the effect of family function on adolescents' violence delinquency and the verification of the mediating effect of Internet game addic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Kim, H. (2008). Adolescent Violent(Attack Behaavior) Related Theory and Pregnability Refinement Program. *Journal of Adolescent Behavior*, 13, 1-15.
- Kim, J., & Hwang, J. (2002). A Study on Improvement of Victimization Survey of School Violence. Ko-

- rean *Journal of Victimology*, 10(2), 81-100.
- Kim, J., & Lee, G. (2010). The Influence of Adolescent's Drinking and Smoking on School Violence: Moderating Effect of Parent-Child Interaction.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12(2), 53-74.
- Kim, K. (2006). A Case Study of Delinquents' Physical Child Abuse Experiences and Violent Behavior. *Journal of Adolescent Counseling*, 14(1), 23-37.
- Kim, M. J. (2001). Factors Influencing on School Violence in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0(2), 241-253.
- Kline, R. B. (200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Y: The Guilford Press.
- Kline, R. B. (2011).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3rd ed.). NY: Guilford Press.
- Kwon, H. Y & Kim, H. Y (2009). The qualitative analysis on psycho-social factors of bullying adolescent at school violence. *The Korean Journal of East West Mind Science*. 12(1), 1-12.
- Lambert, S. F., Ialongo, N. S., Boyd, R. C., & Cooley, M. R. (2005). Risk Factors for Community Violence Exposure in Adolescence.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5, 29-36.
- Lee, H. (2000). The Relationships of Paranoia and Depression to the Mode of Anger Expression.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9(3), 427-438.
- Lee, H., & Kim, E. (2012). The relationship between cognitive and emotional variables and subtypes of aggression in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 19(1), 227-250.
- Lee, H., & Choi, J. (2008). The impact of parenting on adolescents' status offense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 15(1), 197-221.
- Lee, J. (2005). *The Effect of Abused Experiences in Childhood on Violent Behavior*.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 Lee, M. (2001). Moderating Effects of Daily Life Activity Experienc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Violent Behaviors in Early Adolescence.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2(4), 167-188.
- Lee, M., & Choi, E. (2007). Moderating effects of adolescent coping strategi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violent behavior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5(2), 57-65.
- Lee, S. L. (2002). A Study on the Causes of Violence among Students and Preventive Measures for School Violence.,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2-40.
- Lee, S. S. (2003). Violence Subculture, Cognitive Mediation, Anger, and Youth Violence: the effects of Family, School, and Neighborhood.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14(2), 357-381.
- Little, T., Henrich, C., Jones, S., & Hawley, P. (2003). Disentangling the "whys" from the "whats" of aggressive behavior.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7, 122-133.
- Mendelson, T. K., Turner, A., & Tandon, S. D. (2010). Violence exposure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disconnected from school and work.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8(5), 607-621.
- Milligan R. J., & Waller G. (2000). Anger and bulimic psychopathology among nonclinical women.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28(4), 446-450.
-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13). *Law about school violence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 Seoul: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 Moon, S (2009). *Comprehension and application of structural equation model*. Seoul: Hakgisa.
- Moon, S., & Park, Y. (2008). Relation of Self-reported Attachment Style, Trait Anger and Anger Expression in Adolescent Women.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14(2), 143-149.
- No, S. (2004). Critical Review of the Previous Studies on School Violence.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15(1), 87-120.
- Oh, E. (2008). Psychological variables affecting school bullying among elementary students: A focus on gender difference. *The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21(3), 91-110.
- Park, H., & Chung, M. (2006). A qualitative analysis on the understanding the actual states of school bullying & violence. *The Journal of Korean Education*, 33(4), 167-197.
- Park, J. (2003). Offensive sufferer's psychological · social special quality and problem behavior.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41(3), 423-449.
- Park, Y., & Kim. E. (2001). Comparative analysis of high school students and adolescents under institutional supervision = Influence of environmental

- and psychological factors on school violenc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5(1), 25-52.
- Pine, D. S., Cohen, E., Cohen, P., & Brook, J. S. (2000). Social phobia and the persistence of conduct problem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1, 657-665.
- Poulin, F., & Bovin, M. (2000).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Evidence of two - factor model. *Psychological Assessment*, 12, 115-122.
- Quartana, P. J., & Burns, J. W. (2007). Painful consequences of anger suppression. *Emotion*, 7, 400-414.
- Rippon, T. J. (2000). Aggression and violence in health care profession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31(2), 452-460.
- Rottenberg, J., Cross, J. J., & Gotlib, I. H. (2005). Emotion context insensitivity in major depressive disorder.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4, 627-639.
- Shin, H., Lee, K., Lee, H., & Shin, K. (2004). Sex-differences in the effects of comorbidity of depression/anxiety and aggression on adjustment problems of juvenile delinqu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logy*, 16(3), 491-510.
- Shin, M., Chung, K., & Kim, E. (2012). Gender Differences in Depression and Anxiety Among Korean Adolescents: Onset and Developmental Change.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1(1), 93-114.
- Sim, E. (1999). The Correlation of Impulsivity,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in Adolescence. *The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12(2), 24-34.
- Sim, H., & Joung, K. (2007). The Impacts of Children's Self-Differentiation on Anxiety and Peer Relationship.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8(1), 285-297.
- Sloven, N., Fitzmaurice, G. M. Williams, D. R., & Gilman, S. E. (2011). Common patterns of violence experiences and depression and anxiety among adolescents. *Comprehensive Psychiatry*, 52(6), 14-15.
- Song, D., Seung, J., & Song, J. (2004). Emotional and Behavioral Factors Relating Adolescent Delinquency in Community. *Journal of The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43(1), 68-73.
- Song, J., Hwang, S., & Jeun, M. (2009). Relationship between Anger Level and Anger-Expression Mode: Age group comparison. *The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6(2), 213-227.
- Spielberger, C. D., Jacobs, G., Russell, S., & Crane, R. S. (1983). Assessment of anger: The state-trait anger scale. *Advances in personality assessment*, 2, 159-187.
- Spielberger, C. D., Krasner, S. S., & Solomon, E. P. (1988). The experience, expression, and control of anger. In *Individual differences, stress, and health psychology* (pp. 89-108). Springer New York.
- Swaha, M. H., & Dnovan, J. E. (2005). Predictors of fight attributed to alcohol use among adolescent drinkers. *Addictive Behaviors*, 30, 1317-1334.
- Ttofi, M. M., Farrington, D. P., & Losel, F. (2012). School bullying as a predictor of violence later in life: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of prospective longitudinal studies Review Article.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17(5), 405-418.
- Vitiello, B., & Stoff, D. M. (1997). Subtypes of aggression and their relevance to child psychiatry.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6, 307-315.
- Wittmann, M., Arce, E., & Santisteban, C. (2008). How impulsiveness, trait anger, and extracurricular activities might affect aggression in school childre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5(7), 618-623.
- Wolff, J. C., & Ollendick, T. H. (2006). The comorbidity of conduct problems and depression in childhood and adolescent. *Clinical Child and Family Psychology Review*, 9, 201-220.

접수일 : 2014년 07월 15일

심사일 : 2014년 08월 06일

게재확정일 : 2014년 10월 17일